비자금 관련자 200명 압축

삼성 특검 "설연휴 지난 후 피의자 소환"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주요 수사대상인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관리 의혹' 관련자 중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그룹 내 인사들의 범위를 상당히 압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특히 다음주까지 각종 물증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연휴 직후가 이번 수사의 중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검찰이 조사했던 차명의심 금융계좌 1천여개 중 실제로 '차명'일 가능성이 농후한 300~400개 계좌를 분석해 왔으며 최근 계좌 명의를 제공했거나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그룹 내 관계자의 범위를 200명선까지 좁혀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옛 구조본(현 전략기획실) 관계자가 20~3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진이 부른 참고인들의 금융계좌들을 포함해 상당수 계좌들은 '차명'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설 연휴가 지나면 구체적인 방향도 잡히고 '피의자'들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곳에 계좌가 개설돼 있거나 근무지와 동떨어진 은행에 계좌가 있는 등 비상식적인 금융거래를 한 그룹 임직원과 계좌운영에 관여도가 높은 전략기획실 소속 실무자 등을 연휴 직후 본격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와 김모 부장,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문서를 빼돌리려 한 경리담당자인 또 다른 김모 부장 등 3명을 조만간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미술품 구입을 대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송원(55) 서미갤러리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비자금으로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술품인 '행복한 눈물'을 홍 대표가 어떤 돈으로 구매했는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실소유 의혹 집중 조사

BBK 특검, 김성우 사장·상무 등 4명 소환

이명박 후보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3일 ㈜다스 및 도곡동 땅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다스 김성우 사장과 권모 상무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한꺼번에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미심쩍은 17억원의 돈이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다스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밝히는 게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 논란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스에 대한 실질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특검팀은 이날 김 사장 등을 상대로 이씨 명의의 17억원이 어떻게 회사로 들어오게 됐는지, BBK에 190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하는 데 이 당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한 포철 회장으로 있을 때 계열사인 포스코개발에 지시해 김재정씨와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을매입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작년 검찰 수사 때 출석하지 않았던 김만제씨를 4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李 당선인 日王 한국 방문 환영" 아사히 신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일본 국왕의 한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아사히신문의 후나바시 요이치 주필 등 한·미·일 3국 언론인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에 대해 "일왕의 한국 방문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당선인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돼 나간다면, 나는 일왕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드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르코지, 엘리제宮서 깜짝 결혼식

모델 출신 가수 브루니와…가족들만 참석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카를라 브루니가 2일 성명을 내고 결혼사실을 공식 발표해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결혼을 둘러싼 온갖 억측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엘리제궁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양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파리 8구의 프랑수아 르벨 구청장이 전했으며 이는 곧바로 두 사람 명의의 성명으로 공식 확인됐다.

엘리제궁이 소재한 파리 8구의 행정 책임자인 르벨 구청장은 국가의 대리인인 증인 자격으로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르벨 구청장은 결혼식 직후 유럽1 라디오에 "이날 신부는 순백색 웨딩 드레스를 입었으며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주 매혹적이었고 신랑도 멋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랑 신부는 아주 다정다감했고 감동적이었다"면서 "두 사람은 혼인선서와 키스를 교환했으며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해 프랑스의 전통 관례대로 결혼식이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이런 전언을 토대로 현지 언론들은 파리의 한 파티에서 만난 지 두 달여가 조금 지난 두 사람은 양가 가족 10여명씩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면서도 간소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랑 측 증인으로는 프랑스 명품그룹인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고위간부인 니콜라 바지르가, 신부측 증인으로는 프라다 프랑스의 홍보담당 대표인 마틸드 아고스티넬리가 각각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고스티넬리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지난해 10월 이혼한 세실리아 여사와도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이 이미 결혼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으며, 또 다른 언론은 브루니의 고향인 이탈리아의 투린이나 로마, 혹은 루아르 계곡의 16세기 성곽 '샤토드 샹보르'(샹보르성)에서 결혼식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연합뉴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브루니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정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힐러리 각축, 매케인 독주

〈민주〉 〈공화〉

'슈퍼 화요일' 앞둔 美대선

각 후보 사활 건 막판 유세

미 대선 사상 가장 많은 20여개 주가 한꺼번에 예비경선을 치르는 슈퍼화요일을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인 2일(현지시간) 민주당은 오바마와 힐러리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매케인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ABC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클린턴 의원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47%였고 오바마 의원은 43%였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힐러리와 오바마는 각각 47%, 42% 로 엇비슷했다. WP는 설문조사의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힐러리와 오바마와의 지지율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매케인 의원이 48%를 기록, 24%의 미트 롬니 전 주지사를 크게 따돌렸다.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와 론 폴 하원의원은 각각 16%와 7%에 그쳤다.

각 당의 예비후보들이 현재 대선에 돌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지 의사를 묻는 설문에서는 클린턴 의원과 오바마 의원 모두 매케인 의원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를 롬니 전 지사로 가정했을 때는 힐러리와 오바마 모두 두자릿수의 비율 차이로 우위를 보였다.

슈퍼화요일에 22개주에서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후보를 판가름하는 선거인단 수 매직넘버인 2천25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천681명이, 21개주에서 예비경선을 치르는 공화당은 매직넘버인 1천191명에 버금가는 1천23명이 각각 걸려 있다.

오바마는 이날 아이다호의 주도인 보이시에 있는 보이시 주립대학 캠퍼스 야구장에 몰린 1만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워싱턴의 구시대적 분열적인 정치형태로 허물고 변화와 통합을 가져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보잉 '에어버스 A380' 대체연료 시험비행 성공

'세계 최대 덩치'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이 상용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대체연료를 사용한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에어버스는 1일 일반 항공유와 대체연료 GTL(Gas to Liquid)을 섞은 혼합연료를 사용한 A380이 이날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필턴에서 이륙, 프랑스 툴루즈의 에어버스 본사까지 3시간의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미국 보잉은 버진애틀랜틱항공과 함께 내달 바이오연료를 사용, 보잉 747 항공기를 영국 런던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시험비행시킬 계획으로 라이벌인 에어버스가 '선수'를 친 것이다.

항공업계는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억제라는 조류 속에 연료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업계와 항공기 생산업계는 대체연료 연구에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드 정부 전복 위기

반군 수도 장악 치열한 시가전

끊임없는 내전에 시달려온 아프리카 중남부 국가 차드에서 반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전복 위기에 놓였다. 수도 은자메나가 대부분 반군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은 일제히 자국민 소개에 나섰다.

3일 외신과 아프리카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고립된 상태이며, 정부군과 반군이 대통령궁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군과 반군 소식통들이 전했다.

앞서 수천여명의 반군들로 구성된 연합세력은 지난 1일부터 중화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 정부군을 격퇴하고 은자메나 입성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내 곳곳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일어나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거 발생했으며, 일부 약탈도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저에 포탄 한 발이 떨어지면서 대사관 직원의 부인과 딸이 사망하기도 했다.

영국 BBC는 목격자들을 인용, 은자메나 시내에 탱크 30여대가 불탄 채 버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